

# 原電 건설연기 主張에 대한 反論

＝New York 大學 張榮植 教授의 公開 謝過書 促求＝



提言  
張榮植  
(New York University)



馬景錫  
(韓國언지니어클럽 名譽會長)

1990년 6월 9일에 南서울호텔 중국식당에서 前 科學技術處長官 鄭根謨 博士와 대화중 옆자리에 앉았던 某氏가 鄭박사를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N.Y. 大學 경제학 교수 張榮植이라는 명함을 鄭博士에게 드렸다. 그때 本人이 張씨에게 명함을 드리고 身分을 밝히면서 물었다. “張교수가 88년 7월에 H신문에 原子力開發에 관하여 투고하였습니까?” 라고 張씨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다시 물었다. “原子力 11, 12호기는 필요없으니 발주를 취소하라고 한 무식한 놈이 바로 당신인가?” 라고 하더니 張씨는 “취소하라고 하지는 않았고 연기하라고 하였다.” 고 대답했다. 그러자 張씨의 원지가 가세하여 “의견이 다르면 달랐지 애너지 대가야 신 張교수를 무식한 놈이라고 하는 나는 金百成 같은 놈이다.” 라고 하면서 本人에게 달려들기에 “초면에 무식한 놈이라고 한 것은 本人의 잘못이다.” 라고 사과하고 위급한 장면을 모면한 일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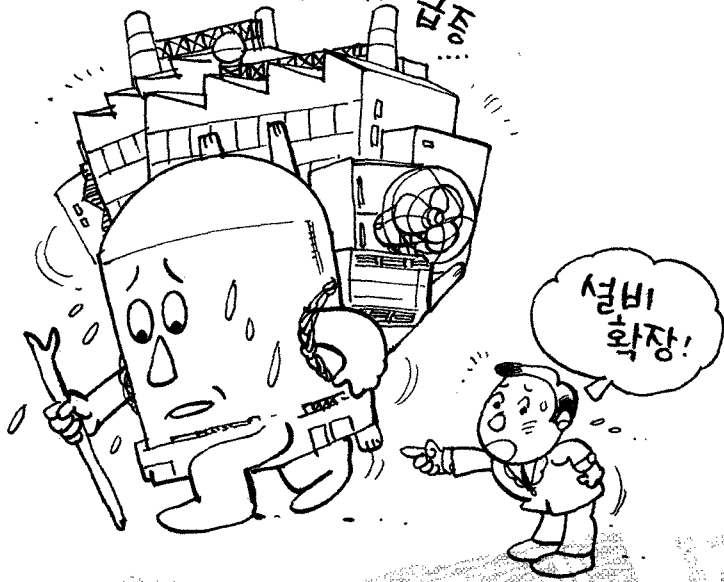
그후 本人은 H신문에 약파하여 88년 7월 21일부 張씨의 기사를 받아 다시 읽었다. 張씨는 그 提言을 통하여 “韓電은 다시 대형 原子力 11, 12호기의 건설을 무리하게 착수하고 있다. 이는 큰 잘못이며, 이같은 낭비는 건설계약

해체에 따른 違約金을 지불하고서라도 하루 속히 중단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本人은 韓電 電源開發計劃에 관하여 오래 연구하여 왔고 80년대 한전이 全원개발을 늦춘 것이 잘못이라고 수차 지적하였다. 88년 8월 14일에도 H경제신문에 투고하여 한전 全원개발계획에서 電力伸張率을 7%로 본것을 대단히 낮은 것이고 12%이상으로 전망되나 발전소 건설을 서둘러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한전이 전력신장률이 너무 높다는 張씨의 주장과는 정반대).

張씨나 本人이 한전 全원개발계획에 대하여 지키의 소신을 밝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의견이 다르다고하여 상대를 비난할 수도 없다.

張씨가 투고하고 2년 5개월이 경과한 현재 90년 12월까지 우리나라의 전력 소비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으며 귀하의 주장이 크게 빛나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 한전통계에 의하면 90년 9월의 豫備率이 3.2%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電力需給上 대단히 위급한 사태로서 制限 送電을 하던 1967년 이후 23년 이래의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韓電이 서둘러 非常對策을 마련하지 않으면 미구에 제한송전을 강요당하는 사태에 이르지 않을가 하는 염려를 떨쳐 버

전력소비 급증



# 가신공정대형발전

탈 수가 없다.

張씨가 투고한 20일후인 88년 8월 10일에도 최대전력이 1,366만kW를 기록함으로써 예비율이 7.7%로 뚝 떨어져 한전을 긴장시켰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때 張씨는 전력수요의 20일 앞도 내다 보지 못하는 短見하고 無識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電源開發分野의 대가인 채하며 80년대 90년대 전력수요 운운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張씨는 한전의 경영이 잘못되어 국고를 낭비하고 전기요금에 가산하였다 등등 허위사실은 유포하여 한국 최대 국영기업의 명예를 손상시킴으로써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張씨는 이침에 대하여 가까운 시일내에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만일 불응하면 본인은 張씨를 여론을 오도하여 한전의 경영을 방해한 언론공해차원에서 관계당국에 고발 할 것을 검토하겠다.

최근 韓電은 긴급조치로서 효율이 낮고 전력 생산가가 높아서 休止처분하려던 8개 발전소 152만kW를 서둘러 복구하기 시작했고 또 복합 화력 90만kW 2기, 열병합 60만kW 2기와 45만kW 2기 및 원자력 100만kW 2기와 70만kW 1기, 석탄발전소 50만kW 4기 등 계 860만kW의 新規 건설계약을 이미 체결하였거나 발주단계에 있다.